

원저

일 지방대학 학생의 인터넷 의료정보 요구와 이용 및 평가

안재억¹, 장성운², 김귀숙³, 김정아⁴

순천향대학교 의료정보학 교실¹, 순천향대학교 진료소², 동부시립병원³, 한양대학교 간호학과⁴

Needs, Uses and Evalua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mong Students in a Provincial University

Jae Ouk Ahn¹, Soung Woon Jang², Kyu Sook Kim³, Jung A Kim⁴

Dept. Medical Informatics, Soonchunhyang Univ.¹,
In-campus Health Center, Soonchunhyang Univ.²,
Health Management Team, Seoul Metropolitan Dongbu Hospital³,
Dept. Nursing, Hanyang Univ.⁴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eeds, uses and evalua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mong students in a provincial university. **Methods:** Nine hundred and sixty one student from seven different classes of S University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2nd to 9th May, 2005.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on SPSS 11.0. **Results:** 58.2% of them have needed some health information before and 84.6% of them needed the health information offered by a University. 67.2% of them use the Internet more than any other resource to acquire Health Information. 90.9% of them used a search engines to get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57.6% of them have searched fo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to get information about specific disease or medical problem. The most frequently searched topics were LASIK(laser in-situ Keratomileusis), diabetes, and contraception. 39.6% of them evaluated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as reliable and 55.8% of them satisfied with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Conclusion:** Universities and their in-campus health centers are needed to offer the trustworth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on their official homepages so that the student can refer to the reliable and qualifi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15-1, 153-163, 2009*)

Key words: Internet,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tudent Health Services, Community Health Center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19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일

교신저자: 김정아,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33-791)

Tel: 02-2220-0799, Fax: 02-2295-2580, E-mail: joyhippo@hanyang.ac.kr

* 본 연구는 2006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 배경

지난 수년간 인터넷은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환자와 보건의료전달체계 간 폭넓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¹⁾. 미국의 경우 2005년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80%, 약 9천 3백만 명이 16대 주요 건강주제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이용자의 87.3%가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0.1%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성인후기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고, 이 시기에 습득한 건강행위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⁴⁾⁶⁾. 즉, 신체적 성장과 지적 발달이 정점에 있는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여야만 장차 성인 중기를 위한 직업선택과 사회화, 결혼 및 부모 됨 등의 중요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⁷⁾. 그러나 그 동안 입시 위주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자율 및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학생으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학교행사 및 잦은 모임, 오락성 게임의 몰입, 균형 잡히지 못한 식습관, 과중한 학업 양과 진로 준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흡연과 음주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고, 운동부족과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수면과 휴식의 부족을 경험하게 하는 등 신체·정신적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⁷⁾¹⁰⁾.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 보건진료소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행복의 척도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와 교내 환경위생의 관리 및 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 보건관리기구로서, 대학생이 건강한 몸으로 건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¹¹⁾¹²⁾.

근래 교육열의 상승과 대학진학률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타지방으로 혹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을 떠나 유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입학 후 집을 떠나 기숙, 하숙, 자취 등의

생활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40~50%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방대학생의 경우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다 취약한 지지구조를 가지게 된다⁷⁾¹⁰⁾.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지방대학은 시설의 수준이 빈약하고 주로 자취를 위한 주거시설과 소비, 향락의 상업시설로 주변 환경이 한정되어 있고, 약국이나 병원시설의 미비로 인해 의료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학교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지방대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양식 습득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⁷⁾¹³⁾. 충남 아산에 위치한 S지방대학의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학교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경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함께 지방대학 학생들이 가지는 건강위험요인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지지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으로, 대학 내 보건진료소의 경우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대학 진료소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건전한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도록 중재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생각과,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보급이 인터넷 활용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필요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판단 하에 S대학 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를 통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대학생 특히 지방대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가 무엇인지, 따라서 주로 검색하는 의료정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지방대학생을 위한 인터넷 의료정보 제공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대학생의 인터넷 의료정보 요구와 이용실태 및 평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을 통해, 향후 지방대학생의 요구에 맞는 의료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학업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충남 아산시 소재 S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005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학과사무실과 진료소의 도움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의로 본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수거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39부를 제외하여 총 961명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본 연구자들이 관련문헌 고찰 및 인터넷 기반 의료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정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인터넷 의료정보 요구와 이용실태 및 평가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1차 개발하였고, 이후 2005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해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해 통계 처리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로는 남자 39.2%, 여자가 60.8%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 학년은 1학년~4학년까지 각각 21.5%, 35.4%, 25.6%, 17.5%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1세가 24.5%로 가장 많았다. 전공은 공학계열이 23.9%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이 18.2%, 보건(의학 및 간호)계열이 17.5%, 자연계열이 13.9%, 교육계열이 11.0%, 예술 및 체육 계열이 3.5% 등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S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도는 21.1%였고, 경기도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6%, 광역시 15.9%였고, 전라도 4.2%, 경상도 3.9%, 강원 0.7% 등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학생들의 거주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는 35.8%, 자취가 35.7%, 기숙사가 22.5%, 하숙이 4.1%, 친척집이나 기타가 1.0%로 나타나,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요구

대학생의 의료정보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

과 같다.

대학생의 87.1%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대학 내 진료소를 통해 의료정보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3%로 나타났다. 58.2%의 대학생이 의료정보의 필요성을 경험한다고 응답했고, 본인 때문에 의료정보가 필요했던 경험은 28.7%, 가족 때문에 의료정보가 필요했던 경험은 17.1%, 친구나 동료 때문에 의료정보가 필요했던 경험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84.6%의 대학생이 대학이 주도하는 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희망하는 의료정보 제공방법으로는 보건관련 홈페이지가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쇄물로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71.5%의 대학생이 대학홈페이지 내 보건의료관련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학 홈페이지에 진료소 홈페이지를 링크시키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할 계획이 있는냐는 질문에 46.7%가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80%가 넘는 대학생이 대학이 주도하는 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의료정보를 가장 원한다는 것, 실제로 70%가 넘는 대학생이 대학홈페이지 내에 보건의료관련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대학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67.2%로 가장 많았다.

3.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실태

(1) 인터넷 의료정보 획득방법과 이용목적

인터넷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인터넷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기존에 인터넷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학생 71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의료정보의 획득방법 및 이용목적에 질문한 결과, 인터넷 의료정보의 획득방법으로는 90.9%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검색엔진으로는 84.2%가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35.1%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Table1. Needs for health information

(n=961)

		f(%)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117(12.2%)
	good	360(37.5%)
	satisfactory	359(37.3%)
	poor	115(12.0%)
	very poor	10(1.0%)
Number of family member having health problems	≤ 1	326(33.9%)
	none	634(66.0%)
Using experience of the healthcare center in campus	≤ 1	262(27.3%)
	never	699(72.7%)
Frequency of necessity of health information	very frequently	40(4.2%)
	frequently	227(23.6%)
	sometimes	292(30.4%)
	have no idea	355(36.9%)
	not at all	47(4.9%)
Experience to need health information for himself/herself	yes	276(28.7%)
	no	685(71.3%)
For his/her family member	yes	174(17.1%)
	no	787(81.9%)
For his/her friends or co-worker	yes	54(5.6%)
	no	907(94.4%)
Demand on health information serviced by university	highly necesssary	195(20.3%)
	necessary	618(64.3%)
	have no idea	129(13.4%)
	not necessary	19(2.0%)
Prefer type of health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homepage	398(41.4%)
	print media	260(27.1%)
	lecture	92(9.6%)
	broadcast media	134(13.9%)
	on-campus broadcasting	55(5.7%)
	others	20(2.1%)
Demand on health information homepage linked to university homepage	highly necesssary	123(12.8%)
	necessary	564(58.7%)
	have no idea	268(27.9%)
	not necessary	6(0.2%)
Future plan of using the health information on-campus health center homepage	using frequently	45(4.7%)
	using sometimes	404(42.0%)
	have no idea	420(43.7%)
	possibly not using	92(9.6%)
Obtaining means of health information	internet	646(67.2%)
	friends, co-workers, or neighbors	172(17.9%)
	book, print media	61(6.3%)
	hospital, healthcare institute	59(6.1%)
	on-campus health center	7(0.7%)
	never be curious about any health information	16(1.7%)

Table 2. Obtaining means and using objectiv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717)

		f(%)
Means of obtaini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arch engine	652(90.9%)
	direct access to a health information website	56(7.8%)
	others	9(1.3%)
Search engine to acces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AVER	604(84.2%)
	Daum	42(5.9%)
	YAHOO	27(3.8%)
	empas	24(3.3%)
	others	20(2.8%)
Using objectiv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curiosity	284(39.6%)
	health problem	252(35.1%)
	university assignment, study	104(14.5%)
	hospital choice	63(8.8%)
	killing time	13(1.8%)

(2) 획득한 인터넷 의료정보의 유형

인터넷 의료정보를 이용해 봤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획득한 의료정보의 유형은 57.6%가 건강, 질병에 대한 정보였고, 병원 진료시간이나 위치 및 해당의사의 진료시간 등 방문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7.4%, 민간 요법 6.6%, 각종 검사 정보가 6.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ype of obtain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717)

	f (%)
Disease or medical problem	413(57.6%)
Folk remedies	63(6.6%)
Medical treatment or procedure	59(6.1%)
Hospital information (location, doctor profile, office hours etc.)	53(7.4%)
Diet or nutrition according to disease	39(4.1%)
Exercise according to disease	32(3.3%)
Medication	31(4.3%)
Functional food	18(1.9%)
Health device	6(0.6%)
Others	3(0.4%)

(3) 획득한 인터넷 의료정보의 내용

지난 1년간 검색한 의료정보의 내용을 본인을 위한 의료정보 및 가족, 친구나 동료를 위한 의료정보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본인을 위한 의료정보 검색내용은 라식이 15.5%로 가장 높은 순위를 얻었고 그 다음이 감기, 비만, 흡연, 여드름 등의 순이었다. 가족을 위한 의료정보 검색내용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각각 10.0%와 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암, 아토피, 흡연 등의 순이었고, 친구나 동료를 위한 의료정보 검색내용은 피임이 1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흡연, 아토피, 감기, 라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4) 획득한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평가

지난 1년간 획득한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가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획득한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해서 39.6%가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으며, 55.8%의 대학생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26.1%가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이해를, 13.1%가 건강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었다고 응답했고 18.2%가 식습관이나 운동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Table 5).

Table 4. Health Information most frequently searched on the Internet within last 1 year (multiple choice responses)

(n=717)

Searched Health Information (%)	
For himself/herself	LASIC eye surgefy(15.5%)-common cold(4.3%)-obesity(4.2%)-smoking(3.5%)-acne(3.4%)-contraception(2.5%) -plastic surgery(2.5%)-Diet(2.4%)-menstrual pains(2.0%)-rhinitis(2.0%)-sexual health information(1.8%) -LASEC eye surgery(1.8%)-atopy(1.8%)-exercise(1.8%)-drinking(1.8%)-skin(1.8%)-hypertension(1.5%) -diabetes mellitus(1.4%)-sinusitis(1.3%)-gastritis(1.3%)
For his/her family member*	diabetes mellitus(10.0%)-hypertension(9.4%)-cancer(3.3%)-atopy(2.7%)-smoking(2.7%)-osteoporosis(2.4%) -gastritis(2.4%) -thyroid gland(2.1%)-Herniated Nucleus Pulposus(HNP)(1.8%)-arthritis(1.8%)-obesity(1.8%) -stomach cancer(1.8%)-asthma(1.5%)-fatty liver(1.2%)-hepatoma(1.2%)-liver(1.2%)-influenza(1.2%)-rhinitis(1.2%) -hepatitis(0.9%)-glaucoma(0.9%)
For his/her friends or coworker †	contraception(12.8%)- smoking(4.8%)-atopy(4.8%)-common cold(3.2%)-LASIC eye surgery(3.2%)-acne(3.2%) -influenza(2.4%)-plastic sugery(2.4%)-depression(2.4%)-gastritis(2.4%)-drinking(2.4%)

* n=330, † n=125

Table 5. Evaluation of obtain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n=717)

	f (%)
Reliability of obtain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le 284(39.6%) moderate 398(55.5%) not reliable 33(4.9%)
Satisfaction with obtaini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atisfied 400(55.8%) dissatisfied 317(44.2%)
Improved my understanding of symptoms, conditions, or treatment in which I was interested	agreeee 251(26.1%) have no idea 410(42.7%) disagree 29(6.1%)
Improved my ability to manage my health care needs without visiting a doctor or other health care provider	agreeee 126(13.1%) have no idea 382(39.8%) disagree 212(22.1%)
Affected the way I eat or exercise	agreeee 174(18.2%) have no idea 334(34.8%) disagree 213(22.1%)

IV. 고찰

대학 보건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와 교내 환경위생의 관리 및 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 보건관리기구로서,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 및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보건의료 요구 및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¹²⁾. 특히, 지방대학의 대학보건소의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이 도심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보건소보다 더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신을 위한 의료정보의 필요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60%에 가까운 반면, 대학 보건진료소를 통해 의료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보건진료소가 학생들의 건강정보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80%가 넘는 대학생이 대학이 주도하는 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의료정보를 가장 원한다는 것, 실제로 70%가 넘는 대학생이 대학홈페이지 내에 보건의료관련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대학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정보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보건의료계에서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¹⁴⁾되고 있는 이때에, 정보화 시대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해 온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인터넷의 잠재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67.2%가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Cho 등(2007)이 보건복지부 관련 보건의료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¹⁵⁾이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Kim(2000)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46.6%만이 인터넷으로 의료정보에 접촉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보다는 높은 수치이다¹⁶⁾. Cho 등(2007)의 연구 대상자가 이미 보건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였는데 반해 Kim(2000)의 연구대상자는 인터넷사용자이기는 하나 특정 보건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 대상자로 한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또 Kim(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에 접촉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로 한정해 조사한 결과 63.9%로 가장 많은 비율의 대상자가 의료정보의 획득수단이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특정 보건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로만 한정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 활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생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려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보건소를 통해 검증된 질 높은 의료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인터넷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에게 별도로 질문한 결과, 90.9%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 의료정보를

획득하며, 84.2%가 검색엔진으로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Cho 등(2007)의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획득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8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¹⁵⁾이나 Kim(2001)의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건강정보사이트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60.4%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것¹⁷⁾과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의 품질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건강정보 품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¹⁸⁾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 보건진료소에서 대학생의 건강요구에 맞춘 건강정보가 보건전문인을 통해 생성·제공되고 관리 될 때, 대학생들은 보다 질 높고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인터넷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주요목적은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Kim(2005)가 국내 한 의료비지원 사이트에 접속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주목적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36.9%)가 특정질병의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28.9%가 건강상식에 대한 정보, 11.3%가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또, Song 등(2002)의 연구에서도 일반인 중 가장 많은 응답자(57.6%)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목적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련 정보 수집,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31.0%)가 건강상태 및 질병에 대한 건강상담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³⁾. Song 등(2002)은 양질의 건강정보란 우선적으로 정보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건강정보가 존재하나 인터넷의 비체계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찾지 못하는 경우, 건강정보를 전문적으로 검색해주는 검색엔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사이트를 일반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대학생이 인터넷 의료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네이버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이버 검색엔진의 경우 한국 최고의 검색엔진이지만 보건의료 포털사이트도 아니고 어느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조직의 공식 웹사이트도 아니다. Kim(2008)은 네이버의 지식iN에 올려진 내과관련 질문을 추출하여 그 질문과 답변의 내용 및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올려진 건강문제에 대한 답변 중 20%만이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대중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²⁰⁾. 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온라인 건강 상담을 책임질 의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대학생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그 질을 보증할 수 없는 의료정보를 접하고 선택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학생들의 건강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에 대해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보건진료소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양질의 정보로 건강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획득한 의료정보의 유형은 건강, 질병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고(57.6%), 그 다음은 병원 진료시간이나 위치 및 해당의사의 진료시간 등 방문의료기관에 대한 안내(7.4%), 민간요법(6.6%), 각종 검사 정보(6.1%)의 순으로 나타났다.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Susannah, 2005)에서 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건강관련 주제는 특정질환이나 건강문제였고, 그 다음이 의학적 처치나 치료, 식이 및 영양·건강보조식품, 운동 등의 순이었다²⁾. 국내의 경우, Cho 등(2007)의 연구에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인터넷 건강정보는 운동, 그 다음은 질병 관련 정보, 식이 및 영양,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¹⁵⁾, Park 등(2004)의 연구에서는 보건관련학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강관련 정보는 각종 질병, 운동, 비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⁶⁾, Song 등(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인터넷 건강정보는 질병정보, 자가진단정보, 응급정보, 건강상식의 순으로 나타났다³⁾. 또, Kim(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가 특정질병정보를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이 운동·영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뉴스나 정보에 대해 찾기 위해서, 특정 의사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⁷⁾. 이처럼, 연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질병관련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 또는 획득해 이용하는 정보 중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건전문인에 의해 검증된 양질의 의료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S대학교 진료소 홈페이지에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려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므로,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어떤 종류의 의료정보를 검색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 결과, 대학생 본인이나 친구, 동료들을 위해 검색한 의료정보내용은 특정질병에 대한 내용보다 라식, 비만, 흡연, 피임, 여드름, 성형, 다이어트 등 미용성형이나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었고, 반면 가족을 위해서는 당뇨병, 고혈압, 암, 골다공증, 위염 등 특정질환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주제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성인 중·후기 또는 노인기의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해야 할 의료정보의 범위는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청년기 건강문제 관련 정보 및 미용·성형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기보다 이들 대학생이 포함된 가정의 가족구성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학 보건진료소를 통해 대학생에게 검증된 양질의 건강정보가 제공될 때, 그 효과는 대학생은 물론, 그 대학생이 속한 가족의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39.6%가 획득한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해서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으며, 55.8%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26.1%가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이해를, 13.1%가 건강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었다고 응답했고 18.2%가 식습관이나 운동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Baker 등(2008)은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나 상담을 이용해 본 4,764명의 미국 성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67%의 대상자가 건강과 관련

해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증상이나 징후, 의학치료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 주었다고 응답했고, 30%의 대상자가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전문인을 찾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응답했으며, 27%가 식사습관이나 운동양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¹⁾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많이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통한 건강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다¹⁵⁾. 실제로, 구글헬스(Google Health)에서는 여러 곳에 분산된 건강정보를 구글을 통해 수집하여 환자들이 스스로 개인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주치의, 가족, 보호자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2007년 8월 발표 한 바 있고²¹⁾, MicroSoft사는 인터넷 상의 양질의 의료정보만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MEDSTORY.COM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²²⁾. 국내 정보검색엔진에 특정질병명을 키워드로 입력할 경우 실제로 건강관리나 질병치료를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더 우선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ong 등(2002)은 자신들의 연구결과 일반인에게 인터넷 건강정보의 유용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그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사이트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 내용과 제공형식이 유사하여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이트의 경우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이 예상되는 부문과 연계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³⁾.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대학생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전문인에 의해 그 정확성과 유용성이 검증된 의료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정보 제공 홈페이지가 절실하며, 그 의료정보가 굳이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을 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자주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 홈페이지에 링크된 대학 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 지방대학생의 인터넷 의료정보 요구와 이용실태 및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05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충남 아산시 소재 S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9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1.0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의료정보에 대한 요구에서, 58.2%의 대학생이 의료정보의 필요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본인 때문에 의료정보가 필요했던 경험은 28.7%, 가족 때문에는 17.1%, 친구나 동료 때문에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84.6%의 대학생이 대학이 주도하는 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희망하는 의료정보 제공방법으로는 보건관련 홈페이지가 41.4%로 가장 많았고, 71.5%가 대학홈페이지 내 보건의료관련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6.7%가 대학 보건진료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인터넷 의료정보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검색엔진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이 90.9%였고, 인터넷 의료정보의 이용목적은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획득한 의료정보의 유형은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검색한 의료정보의 내용 중 본인을 위해서는 라식, 가족을 위해서는 당뇨병,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평가에서, 30.9%가 획득한 의료정보가 믿을만하다고 응답했고, 55.8%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획득한 의료정보가 관심있던 증상이나 질환, 치료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 건강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 식습관 또는 운동양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 볼 때, 대학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는 대학 보건진료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요구에

부합하고 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해 생성되고 검증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질 높은 의료정보를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시에 위치한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지지 체계가 취약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에게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은 물론 대학생이 속한 가족의 건강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연구대상자를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으로 확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대학생의 의료정보 요구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홈페이지 운영전후 대학생의 의료정보에 대한 지식 및 실제 건강증진행위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1. Baker. C., Wagner H., Singer J., Bundorf K.(2003). Use of the internet and e-mail for health care information. JAMA. 289(18), 2400-2405.
2. Susannah, F.(2005). Today's e-patients: hunters and gatherers of health information online. [online] http://www.pewinternet.org/files/Fox_Ix_Handout_Sept04.pdf
3. Song TM, Park EJ, Lim EJ. The survey of the demand for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 Inform. 2002; 8(2):17-24.
4. Kim SJ, An ES. College women's health concept and health behavior. Kanho Hakhoe Chi. 1997;27(3): 264-274.
5. Kim EA, Chung YK, Kim KS. A study on the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daily life style and self-efficacy in boys' highschool. J Korean Society Sch Health. 2000;13(2):241-259.
6. Park KR, Park JY, Han CH. Utiliza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by undergraduates at colleges related to public health. J Korean Society Health Educ & Promot 2004;21(1):85-102.
7. Park KS.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health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relation to living patterns : focusing on the college students of a certain college in Kangwondo. [Dissertation]. Wonju: Yonsei Univ; 2007.
8. Park MY.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 1993.
9. Yoon EJ.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acti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Society Adult Nurs. 1997;9(2),262-271.
10. Park YJ, Lee SJ, Oh KS, Oh KO, Kim JA, Kim HS, Choi SS, Yi SE, Chung CJ, & Jun HY.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health behaviors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Kanho Hakhoe Chi. 2002;32(6),792-802.
11. Kwon SK. Development of Activation Program Through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Health Center-on the women's university in Seoul [Dissertation]. Seoul: Dongduk Women's Univ.; 2001.
12. Park DY.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health center and the need for health promotion service of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Chuncheon: Hallym University; 2003.
13. Kim OS. Perception of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ccording to of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 2003.
14. Park HA, Kim HJ, Song MS, Song TM, Chung YC. Development of a web-based healt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health promotion in the elderly. J Korean Society Medical Informatics. 2002;8(3): 37-45.
15. Cho KW, Kam S, Chae YM. Analysis of Internet usage patterns of health consumers fo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ssessment criteria. J Korean Society Health Educ & Promot. 2007;24(2):15-28.
16. Kim EJ. A study on Internet users' behavior and perception of the on-line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 2000.
17. Kim HJ. Selection criteria and util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y consumer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 2001.
18. Yoo HR, Jang YS, Ban GO. The evaluation study of service quality of tobacco cessation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eb sites in Korea.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iety. 2003;17(2):278-286.
19. Chung HT, Kim JA. Utilization of Internet-based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hospital selection among health care consumers: Internet survey. J

- Korean Society Med Inform. 2005;11(2):125-135.
20. Kim YH. Analysis of internal medicine counseling in Naver intellegent Network [Dissertation]. Asan: Soonchunhyang Univ;2008.
21. Goole Health. <http://hoogle.kr/entry/Google-Health-프로토타입-스크린샷-공개&http://www.hoogle.kr/805>
22. MicroSoft Inc.. URL:<http://www.medstory.com/>
23. Jang SW.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Internet use for health information and the most popula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Dissertation]. Asan: Soonchunhyang Univ; 2005.